

과학기술, 경제, 자주국방 차원의 防産육성 절실



연사로 초청된 李祥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은 「2000년대 과학기술전망과 防産기술개발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방위산업육성은 국가전체 과학기술개발과 경제발전,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증강의 복합적차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과학기술전망과 防産기술개발 전략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방산학회와 방산진흥회 주관으로 7월 7일 서울 캐피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黃明秀 의원, 李祥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白永勳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金殷泳 KIST 원장을 비롯한, 70여명의 産·學·研·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날 黃明秀 민자당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주국방을 위해서 국방과학기술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표명했다. *

'93 防産 실무 간담회 열려...

정부와 방산업체간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방산관련 현안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산 실무간담회가 6월 30일 국방회관에서 정부와 방산업계 실무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민언 국방부 획득개발국 차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를 갖고 새로운 시각에서 전향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바와 같이 방위산업 분야도 새로운 각오와 시각으로 과거를 돌이켜보고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업계측에서 당면하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연구개발분야 4건, 원가계산분야 7건, 군수지원분야 7건, 수출입분야 4건, 품질관

리분야 5건, 육성지원분야 11건 등 총 38건을 제기하고 정부측 관계관이 매 건별로 대책과 방향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으로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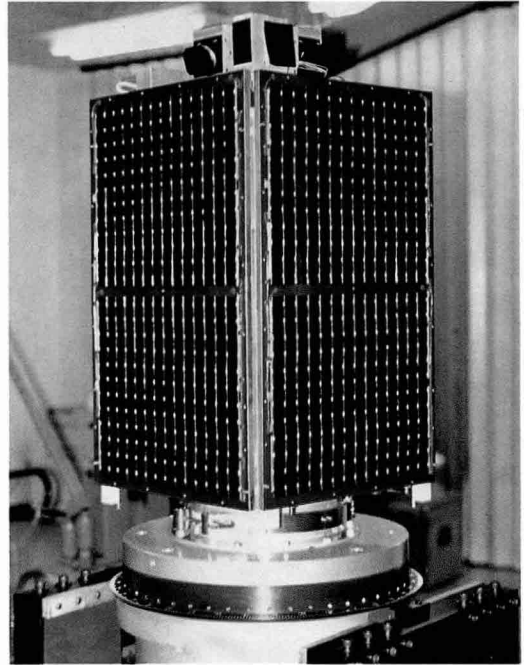
우리별 2호 발사준비 한창

한국 과학기술원에서는 92년 8월 최초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발사한데 이어 「우리별 2호」 개발을 완료하여 오는 9월 1일 10시 27분(한국시간) 프랑스령 기아아나쿠루 발사장에서 발사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발사될 「우리별2호」는 「우리별1호」에 비해 국산화율을 대폭 증가시키고,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우리별2호」의 개발을 통해 차세대 위성개발을 위한 인력확보와 기초시설 완비 및 관련기술 기반을 구축하였고, 위성의 국산화를 통해 우주 및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부여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우리별 연구실 유평일 교수에 의하면 앞으로 2000년대 첨단 위성제작기술 및 운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우리별」 시리즈를 2~3년 간격으로 계속 발사 운영할 예정이다.

1995년까지 첨단 영상자료처리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여, 1997년에는 300kg급 저궤도 환



경관측 및 통신위성을 개발한후 2000년대에는 고해상도/위성통신 기능을 갖춘 중형위성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大宇重工業 러시아와 헬기 공동 생산 합의

- 헬기 완제기 설계 및 생산능력 보유 기대 -

大宇重工業 (대표 石鑣哲)이 6월 29일 대우센타 20층 대회의실에서 러시아의 헬기생산 전문업체인 카잔社를 비롯해 클리모프社, 밀社와 헬기기술도입생산 공동기술개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각서로 대우중공업은 내년부터 러시아 헬기전문업체인 카잔사와는 MI-8기 및 MI-17기등 수송헬기 2종을 한국실정에 맞게 형상과 기능을 개량하는 기술도입생산을, 항공기 엔진 생산업체인 클리모프사와는 항공기 엔진의 기술도입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설계 전문업체인 밀社와는 차세대 수송헬기 및 5톤급 다목적 헬기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여 수송용헬기의 국내공급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도입 및 공동개발 합의각서를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헬기완제기설계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기 부품 수출추진 활발

- 대한항공 MD-11 항공기날개 부품, 삼성항공 F-100형 엔진 부품 -



大韓航空은 최근 美 DAC社 (Douglas Aircraft Company)와 MD-11 항공기(사진 ㉔)의 날개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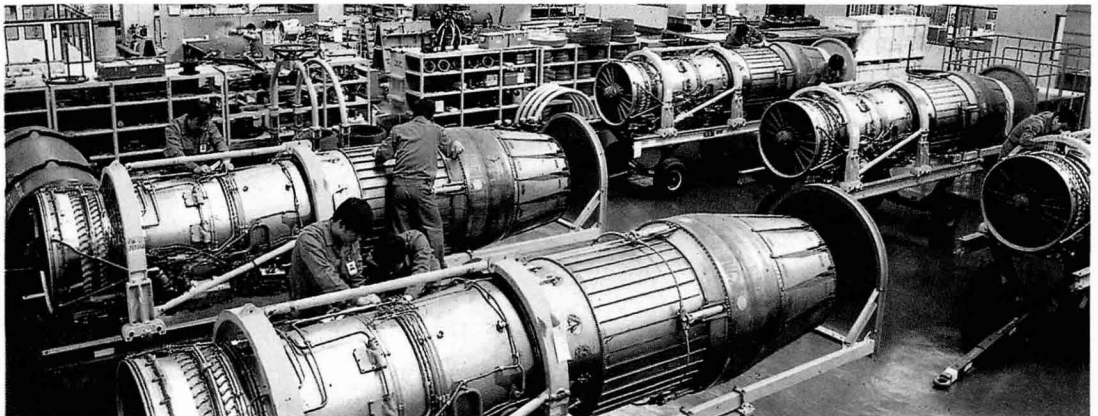
이번에 수출되는 부품은 MD-11 항공기의 날개부품인 「FILLET RIBS」로서, 동체와 날개 연결부위의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장착되는 FILLET를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로 정밀한 제작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수출물량은 200대분, 총 1300만불에 상당하며, 93년 9월 첫 납품을 시작으로 99년까지 200호기를 납품하게 된다. MD-11의 판매상황에 따라 계약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三星航空은 최근 F-100형 항공기 엔진(사진 ㉕)의 공기 흡입장치인 팬인렛케이스를 개발, 오는95년말까지 美國 UTC그룹의 프랫 앤드 휘트니社에 50억원 상당을 공급키로 했다.

팬인렛케이스는 11개의 링류와 21개의 베인류로 구성되어있고, 329개의 공정으로 제작되며, 첨단기술인 티타늄 용접기술과 밀폐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Hot air 퍼지공정등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부품이다.

삼성항공은 90년 9월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개발했고, 제조공정을 2분의 1로 단축해 국제 경쟁력을 구비했다.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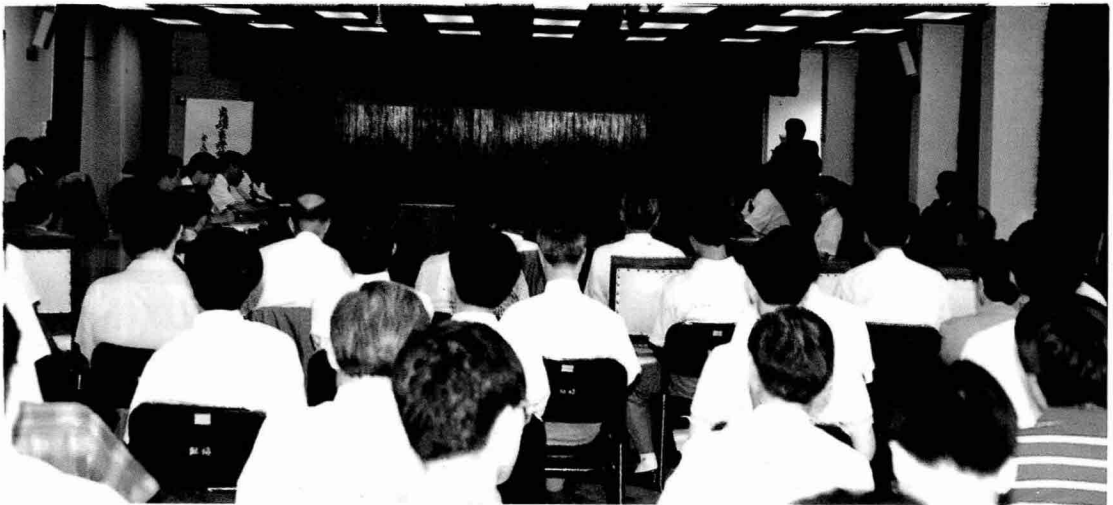
- KIST 2000 연구프로그램 발표 -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金殷泳)은 7월 1일 21세기 기술혁신에 필요한 미래 첨단분야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KIST 2000」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첨단 의료과학기술, 정밀소재공정기술, 차세대 멀티미디어 첨단소자, 입체영상 매체기술, 휴먼 로봇시스템등 KIST가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5개 연구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가졌다.

「KIST 2000」 연구프로그램은 1990년대 후반 또는 21세기초 세계시장에서 큰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형 첨단제품의 핵심기술 개발과, 이들 기술의 국제특허를 획득함으로써 기술의 원천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연구사업들이다.

이번 발표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산업계 및 연구소에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출연연구소 활성화 및 과학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防産업체 지정을 위한 시설기준 제정

- 상공자원부 고시, 혼선 방지 및 참여확대책 강구 -

상공자원부는 방산물자 생산을 위한 방산업체 지정시 구체적인 시설구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없이 지정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방위산업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51호로 제정 고시하였다.

이번고시제정으로 방산업체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물자생산에 필요한 제조공정수행을 위

해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소요되는 부품을 외국또는 다른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일부공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춘것으로 간주받게 된다.

또한 방산물자품질검사시설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국공립연구시험기관 또는 타업체와 검사시설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방산업체지정의 혼선방지와 함께 지정범위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